

1월 24일 토요일 법회 식순

< 1부 > 기도법회 (법요집 참조)

오늘의 영상 - "한국의 발전상(계철)" (금강경독송회)

< 2부 > 불교대강좌

- 주 제 : 승만경 2
- 법 사 : 해주스님(동국대 불교대학 교수)
- ♪오늘의 찬불가 "보현행원" 법요집 p.53

이달의 초청강좌

날 짜	법 회 주 제	법 사
1. 31(토)	승만경 3,4,5	해주스님 (동국대 불교대학교수)
2. 7(토)		
2. 14(토)		

◎ 정각원 「불교아카데미」 모집 • 매주(토) 법회 후 13:30~

구 분	강좌내용	법사	강의실
입문반	불교입문	요경스님	법학관158
교리반	I 초기 불교 불교신행	정천스님	명진관
	II 대승 불교 불교문화	명선스님	A103
漢詩반	한시(漢詩)강좌	동봉거사님	다정산방

정각원 불교대학 동창회 봉사활동



◎ 추운 겨울을 맞아 정각원 불교대학 동창회에서 정각원 산하 신당데이케어센터를 방문해 어르신 돌봄 봉사를 다녀왔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보시행을 실천하는 동창회로 더욱 발전하고 자리매김하길 기원합니다.

마가스님과 함께하는 2015 마음챙김캠프 화! 어찌란 말이냐!



화!
참으면 병이 되고,
터뜨리면 후회하고,
알아차리면 사라집니다.

- ◎ 기 간 : 2015. 1.30 ~ 2.1(2박3일)
- ◎ 장 소 : 한국문화연수원(공주) ☎ 041)841-5050
- ◎ 강.법사 : 마가스님, 문진건(캘리포니아대 심리학과 교수)
- ◎ 참 가 비 : 50만원

문의 ☎ 자비명상 02)3666-0260



올미년 인등을 밝히세요~

각자의 원을 담은 공덕행(功德行)!
행복도량 정각원에 인등을 밝히세요~

- ◎ 인 등 : 1년, 오만원
- ◎ 신청문의 : 정각원 사무실 ☎ 2260-3017

* 토요일 법회 시 축원 해드립니다.^^

건축108주년기념관 시주 동참 권선

동국대학교가 건축 108주년기념관 건립을 통해 무한한 가능성과 함께 새롭게 도약하고자 합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후원 부탁드립니다.



◦ 계좌 ◦ 정각원사무실 ☎ 2260-3016~20



보시동참

1월 19일 불전 공양

₩ 1,813,000원

법타스님, 마가스님, 해주스님, 강은희, 권혁채, 김명숙, 김범석, 김선문, 김성희, 김종관, 김지선, 김희년, 남창강, 노이정, 박경자, 박성진, 박영순, 백광호, 안대준, 양경식, 오정환, 원서준, 윤호문, 이기형, 이봉자, 이선향, 이성부, 이수준, 이인주, 이정호, 정도원륜, 조경자, 조분옥, 주해선, 주호빈, 주호성, 한영옥

(그 외 무기명 보시 불자님)

<법회경비 집행내용 : 교비 지출>

₩ 1,178,000원

(법사비, 토요일법회 촬영과 편집비, 법보지 인쇄비 등)

인등 보시

김도윤, 김동규, 김웅남, 김장우, 변현주, 송재용, 신승훈, 신혜리, 위승환, 유보라, 유종훈, 이영순, 이종서, 이종호, 임한규, 정성욱, 정홍재, 지경석, 지상훈, 지승훈, 지영훈, 최순금, 현서빈, 황비호

공양 보시

◆ 불단떡/과일 : 정각원 신도회

§ 부처님께 올리는 여섯 가지 공양(향, 초, 차, 과일, 꽃, 쌀)은 큰 복전을 짓는 것입니다. 동참 바랍니다.^^

정각원 청년회 법회 안내

금일 정각원 청년회 법회를 봉행합니다.
청년불자회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 일시 : 14시 ◎ 장소 : 정각원 법당



정각원 토요일법보

信心 강한 엘리트 불자 됨이 불교의 희망입니다.

불기 2559(2015)년 1월 24일

제277호(週刊)



사물이 평등하여 차별이 없는 보편적 합일개념을 쏘이라 한다.
사물 그 자체의 본질은 실체가 없고, 생하는 것도 멸하는 것도 없으며
어떤 이원성도 없고 말로는 표현할 수 없으므로 쏘이라고 하는 것이다.

[능가경]

신임 교직원 신행연수



◎ 19(월) 마가스님 지도하에 신임 교직원 6명에 대한 신행연수가 있었습니다. 법당에서 불교 기본예절을 배우고 108배 정진을 봉행하였으며, 원장스님께서서는 차담과 함께 진정한 동국인으로 거듭나길 당부하셨습니다.

신당5동어린이집 ♪ 효사랑 가족잔치 ♪



◎ 17(토) 본관 중강당에서 정각원 신하 신당5동 어린이집 주관으로 「효사랑 가족 재롱잔치」가 있었습니다. 100여명의 선재동지들의 귀여운 공연과 함께 가족 간에 효와 사랑을 나누는 행복한 가족 잔치가 되었습니다.

입춘 3일 기도 안내

24절기의 시작! 입춘을 맞아 을미년 한해의 무운장구와 가내평안을 발원하는 기도를 봉행하니 두루 동참하시어 기도 성취 이루시길 바랍니다. _O_

- 일 시 : 2.4(음1/16)~7(토) 10시~
- 동참금 : 3만원
- 장 소 : 정각원 법당

문의 ☎ 2260-3017

(사) 동행연우회

원장스님, 대표자 취임식

금일 원장스님께서 봉사, 사회복지를 실천하는 (사) 동행연우회 이사장으로 취임하십니다.

- 일시 : 1.24(금일) 17:00~
- 장소 : 상록원 3층



<불기 2559 정각원신도회 운영진 모집>

정각원 신도회에서 함께 봉사해주실 신도님을 모집합니다.
부처님 가피 속에 함께 봉사해요~



- 방식 : 자원 혹은 추천
- 기간 : 2015. 1월 까지
- 분야 : 부회장(단), 운영위원
재무·봉사·포교·교육·화주(부장)

문의 ☎ 신도회총무(법원 010-9033-3089)

매달음의 향기가 두루 하길 염원하는 향공양 동참안내

육법공양(향, 등, 차, 꽃, 과일, 쌀) 중 으뜸인 향공양을 부처님 전에 올리시고 번뇌해탈을 얻으세요~



※ 공양보시 : 1상자 7천원

☎ 보시문의 : 2260-3017

승만경 2

동국대학교 불교대학 교수
해주스님

▶ 제1 여래진실의공덕장

사위국 기수급고독원 (기원정사: 부처님 안거 25년간, 최다)

파사익왕 - 말리부인 => 승만부인- 아유사국 우칭왕

* 말리 -> 편지 -> 승만 -> 귀의 -> 道意(보리심), 찬탄 -> 수기.

▶ 제2 십수장

	發戒緣	지계始	지계終	지계 내용
1	세 존 이 시 여 世 尊	저 는 오 늘 부 터 我 從 今 日	깨 달 음 에 이 르 기 까 지 乃 至 菩 提	받은 바 계에 범하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겠습니다. 於所受戒 不起犯心
2				모든 어른들에게 오만한 마음을 내지 않겠습니다. 於諸尊長 不起慢心
3				모든 중생들에게 화내는 마음을 내지 않겠습니다. 於諸眾生 不起恚心
4				다른 이의 몸과 소유물에 대해 질투하는 마음을 내지 않겠습니다. 於他身色 及外眾具 不起嫉心
5				안팎의 것들에 아끼는 마음을 내지 않겠습니다. 於內外法 不起慳心
6				스스로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받아 쌓아두지 않으며, 무릇 받은 바 있는 것을 모두 가난한 중생들을 성숙시키는데 쓰겠습니다. 不自為己 受畜財物。凡有所受 悉為成熟 貧苦眾生
7				스스로 자기를 위하여 사섭법을 행하지 않겠으며 일체중생을 위하는 까닭에, 애착에 물들지 않는 마음, 만족해 싫어하지 않는 마음, 걸림없는 마음으로 중생을 거두어들이겠습니다. 不自為己 行四攝法。為一切眾生故。以不愛染心 無厭足心 無罣礙心 攝受眾生

8			<p>혹 고독하거나 갇혀있거나 갖가지 액난으로 괴로움에 처한 중생들을 보면, 마침내 잠시도 외면하지 않으며 반드시 안온케 하겠습니다. 재물로써 이익케하여 못 고통을 벗어나게 한 뒤에야 외면하겠습니다.</p> <p>若見 孤獨幽繫疾病 種種厄難 困苦眾生。終不暫捨。必欲安隱。以義饒益 令脫眾苦 然後乃捨。</p>
9	세 존 이 시 여 세 尊	저 는 오늘 부터 我 從 今 日	<p>개 달 음 에 이 르 기 까 지 乃 至 菩 提</p> <p>혹 잡아 기르는 갖가지 올바르지 못한 생활방편 및 계를 범하는 이를 보면 마침내 포기해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힘을 얻게 될 때에는 어느 곳에서든지 이러한 중생을 보아 마땅히 절복해야 할 자는 절복하며 마땅히 섭수해야 할 자는 섭수하겠습니다.</p> <p>若見 捕養 眾惡律儀 及諸犯戒 終不棄捨。我得力時。於彼彼處 見此眾生。應折伏者 而折伏之。應攝受者 而攝受之。</p> <p>何以故。以折伏攝受故 令法久住。法久住者。天人充滿 惡道減少。能於如來所轉法輪。而得隨轉。見是利故 救攝不捨。</p>
10			<p>정법을 받아들여 마침내 잊지 않겠습니다.</p> <p>攝受正法 終不忘失。</p> <p>何以故。忘失法者 則忘大乘。忘大乘者 則忘波羅蜜。忘波羅蜜者 則不欲大乘。菩薩不決定大乘者。則不能得攝受正法欲。隨所樂入。永不堪任 越凡夫地。</p>
<p>저는 이와 같이 한량없는 큰 잘못을 보며, 또 미래에 정법을 섭수할 보살마하살들의 무량한 복덕과 이익을 보기 때문에 이러한 큰 서원을 세우는 것입니다.</p> <p>我見如是無量大過。又見未來攝受正法。菩薩摩訶薩 無量福利故 受此大受</p>			